

Theme Analysis

한국은행 미 연준 자금 공급개시

- 내달 40억불 첫 입찰시작

2008년 11월 27일

Analyst

김수환

02) 2009-7093

kimsh@leading.co.kr

한국은행은 12월 2일부터 미국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을 실시 하기로 27일 발표했다.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국은행과 미 연준(FRB) 사이의 2009년 4월까지 최고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협정 체결 후 첫 번째 입찰이다. 이는 연말을 앞둔 기업들의 외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. 또한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자금조달기회 확대, 외화자금사정개선과 시장불화 완화추가조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 한국은행은 자금상황에 따라 추가입찰과 규모를 결정하기로 발표했다. 입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입찰시간: 12월 2일 (오전10:00~10:30)
- 결제일: 12월4일
- 만기일: 2009년 2월26일
- 다음달 2일 한국은행은 40억 달러 규모의 스왑경쟁 입찰실시
- 낙찰되는 금액 연준 자금을 활용해 대출할 방침
- 최소응찰금액 100만달러, 그 이상은 100만달러의 배수, 하나의 은행당 최대응찰 액은 입찰금액의 20%내에서 입찰할 때마다 결정
- 외화대출을 받는 은행들은 대출금액의 100%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. 담보물 기준은 한국은행의 RP매매대상증권 가운데 국채, 정부보증채, 통안증권 예외적으로 담보가 부족할 경우 은행 채나 일부 특수채등 여타RP매매 대상증권이나 원화현금도 인정